



준비와 목탁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10년만의 불자 한의사 법회

12월 15일 저녁 8시. 조계사 극락전 2층에서는 10여 명의 한의사들이 동참한 조촐한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본관 스님의 집전에 따라 <금강경> 독송까지 여법하게 진행됐다. 날씨가 추운 탓도 있었겠지만 그리 넓지도 않은 극락전 법당은 법회 내내 찻머핀과 실 돈과 스님의 집전에 따라 <금강경> 독송까지 여법하게 진행됐다. 날씨가 추운 탓도 있었겠지만 그리 넓지도 않은 극락전 법당은 법회 내내 찻머핀과 실 돈과 스님의 집전에 따라 <금강경> 독송까지 여법하게 진행됐다.

축면을 균형 있게 살피며 어느 한 면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드라마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옛날 스님들 중에는 한의학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불교와 한의학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스님들은 중생들의 마음과 육체적인 병을 함께 고쳐왔다.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모임치고는 첫 법회의 참여율부터 저조했다. 참가자들도 아직은 서투르다. <금강경> 독송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의사 중에는 절반 이상이 불교를 선호한다고 한다. 포교원에서 올 초부터 조직한 직장직능 단체인 한의사불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가장 우선 될 것은 회원의 확보가 아닐까? 또 조직을 구성하고라도 끝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와해됐던 대한불교한의학의 전철을 밟게 될까?

법회를 마친 한 참가자의 "불자 된 지 10년 만에 <금강경> 독송을 처음 해본다"는 말은 법회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비록 "처음" 열린 법회였지만 장립법회가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이제 신생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진실된 불자로 거듭나고자 10년 만에 다시 모인 한의사 불자연합회의 첫 걸음을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불교와 한의학, 성불(成佛)과 의도(醫道)는 모두 마음자리에 근원을 두고 있기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이수환 회장의 말처럼 신심으로 다져진 불자 한의사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길이 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불교와 한의학의 사상 체계는 비슷한 면이 많다. 불교는 "지금 여기"의 문제를 다루는 현실 중심적인 종교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왔다. 한의학도 그 시대마다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발전했다. 또 한의학은 인체를 구조와 기능의 측면, 육체와 정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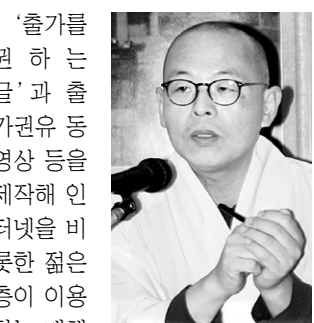
출가권유부터 특수교육까지 '변화' 물결

조계종 교육원 '교육원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 "내용·환경 개선에 주력"

12월 13일 "캐나다에서 수녀 모집 광고를 준비 중"이라는 외신보도처럼, 국내에서도 출가를 권하는 글과 동영상 등 출가자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육원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 (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의 골자는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전라과정으로 △기초교육(행자교육) △기초교육(예비승교육) △전문교육 △재교육(연수교육) △특수교육 등 5대사업의 교과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다. 각 교육단계는 2·3·4·5급 승가고시 등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강제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했다.



'출가를 권하느라 글'과 출가권유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을 비롯한 젊은 층이 이용하는 매체에 노출시켜 적극적으로 승가인력 확보에 나서는 것부터 큰 변화다. 또, 출가행자 입문 교육과정(3박4일)을 개설해 승가의 비전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행자교육을 위해 '일상교육지침'을 마련해 각 사찰에 하달하기로 했다. 행자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자료를 교육원이 지원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전문·회향으로 나눠 단계별로 내실 있는 기초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중앙승가대·강원 등 기본교육체계도 전통적 승려상에 21세기 교육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전통경학 중심의 강연교육을 점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 등)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본교육은 출가자로서 불교적 소양과 가치관을 갖춘 인재 배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기본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연구한 결과를 공청회를 거쳐 최대한 중도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면서 "교육내용 개편과 교재 개선, 교수진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원 발전에 교육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교재의 한글화와 교수진 확보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재가 현대화·한글화 되면 현재 승가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될 것"이라며 "교수진은 교육원이 직할로 별도의 그룹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교육은 승가 전문역량 향상과 교수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전문교육진화비율이 2~3%인 것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현재 형식적이라 비판 받는 재교육(연수교육)도 호스피스, 청소년 상담, 인터넷 활용, 기획력 향상과정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보충해 진행한다.

교육국장 태경 스님은 "사회법 등 사회와 관련한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교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춘 재교육 과정을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화를 대비한 영어학교, 불교

미술을 전문 수하할 불화학교가 설립되는 등 특수교육도 강화된다.

하지만 교육원의 발전계획이 시행되려면 갈 길이 멀다. 당장 조계종에 일고 있는 전통강원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부터 문제다. 행자교육원 명을 비롯해 재교육·특수교육법 제정 등 법률적인 단계도 거쳐야 한다. 다행히 재정적인 부담은 총무원 측에서 상당부분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이다.

법인 스님은 "일본 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만해 스님도 인문학을 강조했다"며 "1994년 교육원 별원화 이후 '선교 후퇴'를 체계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일선 교육기관 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실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의 맛을...

천태종 명락사 13일 체험코너 마련

국내 최초의 다문화모자가정을 위한 자립 공간인 '명락빌리지'를 개원한 천태종 명락사(주지 무원)가 12월 13일 경내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의 장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무원 스님, 김희철 민주시민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의원과 다문화가족 등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무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은 100만 명이 넘는 정도로 다문화가족들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한국사회 적응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명락사는 앞으로 1회로 그치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전통음식문화 체험하는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장 담그기, 떡메치기(인절미 만들기), 김치전 만들기 등 체험코너가 마련됐으며 다문화가족들은 직접 김장담그기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월(조선족·48)씨는 "내년 2월이면 쉼터에 온지 2년째 되는데 이번 행사에 처음 참여해 한국과 연계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담근 김치 1000포기는 서울 관악구청을 통해 인근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02)873-3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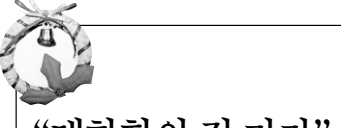
으로 1회로 그치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전통음식문화 체험하는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장 담그기, 떡메치기(인절미 만들기), 김치전 만들기 등 체험코너가 마련됐으며 다문화가족들은 직접 김장담그기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월(조선족·48)씨는 "내년 2월이면 쉼터에 온지 2년째 되는데 이번 행사에 처음 참여해 한국과 연계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담근 김치 1000포기는 서울 관악구청을 통해 인근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02)873-3405

이어나게



"대화합의 길 가자" 자승 스님 성탄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009년 성탄절을 맞아 예수탄생 축하와 종교화합 다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16일 '소통과 화합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메시지를 통해 "경제난의 이대 사랑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며 "종교인이 먼저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이념과 사상,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대화합의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은 21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란 현수막을 게시했다. 조계종의 성탄절 축하행사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가까이 지내며 소통하고파"

자승 스님, 종로 이웃 종교인사 초청 오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종로지역 이웃종교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총무원이 소재한 종로 인근 종교인들과의 오찬모임에는 대한성공회 교무위원장 김광준 신부, 견지동 중앙교회 강광석 수석장로, 천주교 혜화동 카톨릭 신학대학 박문성 신부, 원불교 종로교당 정숙현 교무, 성균관정한기 사무총장, 민족종교협의회 이찬구 기획부장, 법륜사 주지 보경 스님, 태고종 법륜사 보경 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에서는 사회부장 혜경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이 배석했다.

자승 스님은 오찬에서 "지난 11월 5일 취임해 종로구에는 제일 늦게 입성하게 되었다. 이웃종교간 화합은 진짜 이웃사촌인 지역 종교인들과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11월 18일, 12월 15일 견지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5층 '바루' 등에서 7대 종교

대표들과 공양을 한 바 있다. 조계종은 "향후 종교간 소통과 화합,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다"며 종교화합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좌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2554(2010)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귀의 삼보하옵고

낙목한천 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 일들이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회향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2554(2010)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코저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뜻있게 원만회향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1월 6일 (음력 11.22) 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6동 843번지)
- 문 의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 02)735-0501~2
대한불교원효종 울산사무소
☎ 052)262-6857, 6859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 051)467-3316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